

우회전 법규 위반한 덤프트럭에... 27년 환경미화원 ‘안타까운 죽음’

운전자 신호 무시, 일시정지 안해
동구 장동로터리서 퇴근길 참변
동료들 “누구보다 성실했는데...”

27년 동안 광주시 동구에서 활동하던 50대 환경미화원이 법규를 어기고 우회전 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숨졌다.

덤프트럭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A(57)씨가 4일 오전 11시 20분께 동구 장동로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는 B(56)씨의 15t 덤프트럭에 치였다.

A씨는 중상을 입고 이송됐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숨을 거뒀다.

경찰은 B씨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려다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덤프트럭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B씨는 횡단보도에 초록색 보행자 신호등이 켜지는 순간부터 우회전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고 우회전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

A씨는 동구청 소속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이날 새벽 6시부터 동구 충장로우체국 일대에서 환경미화 활동을 했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동료들에게 A씨는 ‘출석번호 1번’으로 통했다. 근속 연수 27년으로 동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로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해 온 베테랑이었다.



광주시 동구청 가로환경미화원 A(57)씨가 4일 광주시 동구 장동로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동구 환경미화원 중에서 최고참이었지만 동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일이 까다롭다는 충장로우체국 일대 청소를 도맡았다.

동구청 가로환경미화원 반장인 최오근(56)씨는 “A씨는 반장인 나보다 더 오랫동안 근무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 늘 후배들의 든든한 ‘기둥’이었다”고 애도했다.

A씨는 평소 술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늘 남에게 사소한 피해조차 주지 않던 ‘바른 생활 사나이’였다고 한다.

최씨는 “가로환경미화원 직업 특성상 업무 지역이 나눠져 있어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

나, 선후배, 동료들이 존경하는 선배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A씨가 최근 직장 동료들에게 올 초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회사에 취업했다고 자랑했다”며 “아들이 사회에 잘 자리잡으려면 많이 도와줘야 한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입버릇 처럼 말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차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공용물품 빼돌리고 가족 등 부정채용 혐의 노조가 광산구청 국장급 공무원 검찰 고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

광주 자치구 고위직 공무원이 공용물품을 빼돌리고 가족과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통합노동조합은 4일 광산구청 소속 4급(국장급) 공무원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광주지방법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단 통합노조는 A씨가 광산구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로 파견된 2014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카메라 렌즈, 목공예 공구세트, 휴대전화 등 합산 650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을 빼돌렸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통합노조는 카메라 렌즈, 목공예 공구세트 등은 공단 업무에 필요 없는 취미 생활용품으로 A씨 지시에 의해 구매가 이뤄졌다는 설명도 고발장에 담

았다. 노조는 A씨가 동 행정복지센터장(동장) 재임 시절 직위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A씨는 고위 공직자로서 청렴의무와 성실의무를 저버렸다”며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A 국장은 공용물품 횡령 의혹에 대해 “공유 물품으로 구비한 것을 저도 이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직원에게 채용 공고가 나면 알려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채용비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하자 담보 기간 지났어도 유사 하자 뎀 책임

광주지법 “아파트 건설사 등 입주민에 배상하라” 판결

아파트의 하자 담보 처리기간이 지났어도 유사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건설사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나경)는 광주시 북구 용두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에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건설사와 공동에 8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2월 사용 검사를 받았고 입주자들에게 인도됐다.

하지만, 아파트가 설계도에 따라 시공되지 않았고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돼 공용·전유 공간에서 균열·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입주자 대표는 입주 1년차인 2018년 4월 이전부터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건설사에 요청했지만 하자가 지속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는 2년, 3년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권리의 존속기간)이 지나 소멸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아 면책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타일 탈락, 천장 누수 등의 하자보수를 진행한 점, 2018년 12월 이전에 하자보수 요청을 한 점, 입주자들이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년차 및 3년차 하자의 처리에 대해 보수를 이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들어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설사의 하자 보수에도 불구하고 기존 타일 하자를 포함 2년차 및 3년차에 하자들이 남았고 실제 보수를 요청한 하자뿐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한 하자 역시 모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포괄적으로 관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들이 기간내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외국인등록증 이용 ‘대포 유심칩’ 불법 판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
광주서부경찰, 2명 검거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일명 ‘대포 유심(USIM)칩’을 만들어 수익원을 받고 범죄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서부경찰은 태국인 등 외국인 1561명 명의를 도용해 대포 유심칩을 개통하고 판매한 A(50)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수감중인 B(42)씨는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18일부터 지난해 11월 4일까지 11년 동안 대전에서 휴대전화 통신사 점포를 운영하며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 유심칩을 개통해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들은 대전시와 경기도 2곳에서 빌라·원룸

등 2채를 이용해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도 있다.

A씨는 불법 유심칩을 B씨에게 개당 5만여원에 팔아 총 3200여만원을 챙겼고 B씨는 이를 보이스 피싱 등 불법조직에 개당 15~20만원에 판매해 총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판매한 불법 유심칩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액이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원룸 2곳의 전세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2억 5000여만원의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는 대전에서 거주하는 고향 선후배로, 범죄 수익금은 유혹비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전의 한 배달업체 운영자 부부로부터 휴대전화·통장·카드 등을 제공받아 생활하다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2월 초 광주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 남친 신고에...20대 여성 마약 투약 들통

20대 여성이 전 남친의 신고로 마약투약 사실이 들통나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광산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여·20)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에 광주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여자친구가 마약 하는 것 같다”는 남성의 신고를 받고 A씨의 행적을 쫓았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3시에 광산구 우산동 무

진대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와 4명의 탑승자에게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A씨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한 차례 마약을 투약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동우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